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조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제 홈스테이 주소는 Marine Drive 435였습니다. 이곳에서 Langara College까지의 거리는 버스 및 도보로 약 20~30분 정도였습니다. 규모는 생각보다 컸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1~2곳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하며 사람들은 친절하고 평화로웠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로 오후 12시~1시는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스피킹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고 교실을 벗어나 밴쿠버를 무대로 한 문화 체험도 주에 1~2회 정도 있었습니다. 총 3개의 반으로 나뉘었고 이 중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은 2개의 반에 나누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각 반의 담임 선생님에 따라 수업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저의 경우 활동적인 수업이 주로 있었습니다. 과제는 거의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글을 써서 제출하면 침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담 없이 재밌게 즐기다 온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교실에서 진행된 수업 이외에 여러 문화 체험 등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아쿠아리움 등의 문화 체험을 비롯해 카약 타기, 카필라노 브릿지 방문 등의 활동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비용이 더 요구된다거나 준비물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주의 사항이나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할 경우 학교 측에서 충분히 안내해줍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8월의 밴쿠버는 정말 좋았습니다. 3주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해는 오전 6시 쯤 뜨고 오후 8시 쯤 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대부분이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 상쾌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E Hastings라는 지역과 차이나타운의 일부분만 제외한다면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괜찮았습니다. 치안도 좋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안전했지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V)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의 호스트 가족은 인도에서 와서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해 첫 날을 제외한 모든 저녁을 밖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욕실 사용과 점심을 싸주는 등의 저녁 식사 이외의 전반적인 것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식사	기숙사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외부 식당을 이용했고 전반적으로 위생 상태도 좋았고 퀄리티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만만치 않아 팁까지 포함한다면 한 끼에 2~3만원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저는 도보와 버스를 이용했고 수업 이후 주어지는 자유 시간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구글맵을 이용하면 버스와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 편리하고 늦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100만 원	매일 저녁 외부 식당 이용

기념품	약 80만 원	
기타	약 20만 원	개인적인 쇼핑
합계	약 500만 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생각보다 현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생각보다 현지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겨서 로밍보단 유심을 추천합니다. 현지 원어민에게 들은 정보로는 겨울의 밴쿠버는 오후 4시면 해가 지고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6명 이상의 인원이 한 번에 식사를 하면 18%의 팁이 무조건 붙었고 적어도 15%의 팁을 낸다고 가정하면 비용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3주였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학 연수 전에는 교환 학생을 준비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 3주간의 경험을 계기로 해외로 더욱 많이 나가고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8월의 밴쿠버는 날씨와 분위기,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만약 8월 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재밌는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명시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깝지 않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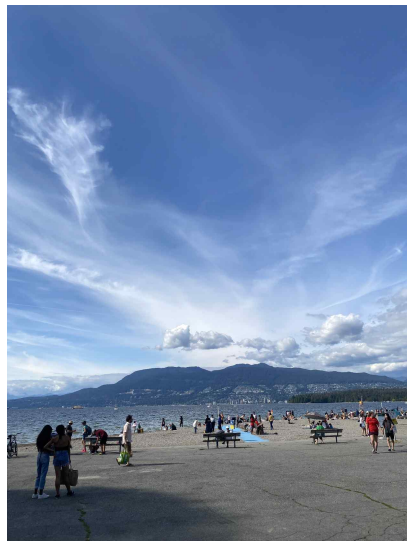
Metro Town



Queen Elizabeth Park



Canada Place



Kitsilano Beach



UBC



Capilano Bridge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관광지 딱 중간에 있어서 학교 끝나고 돌아다니기 좋았다. 학교 내부에는 팀홀튼과 스타벅스가 있다. 하지만 식당들은 문을 안 열어 서 아쉬웠다. 파견대학은 시설이 깔끔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괜찮았다.</p>
수업	<p>한국에서 레벨 테스트를 한 후, 분반 수업으로 진행됐다. 수업내용은 다양한 문화 차이, 글로벌 시티즌십,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 우리 반의 경우 선생님이 정말 활기차시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 다. 문법보다는 스피킹 위주의 활동을 많이 준비해주셨고, 중간중간 지루 하지 않게 다양한 게임들도 마련해주셨다. 과제는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분량이였다.</p>
Activity	<p>Discover Vancouver - 개스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그랜빌 아일랜드 등을 간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아쿠아 버스를 타고 간다. - 학교에서 비용지원) Museum of Vancouver - 밴쿠버 박물관. 밴쿠버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p>

	<p>Kayaking – 뱃코브로 가서 카약을 탄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물에 젖을 수도 있으므로 갈아입을 옷은 필수이다.</p> <p>Aquarium –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다.</p> <p>Capilano Bridge – 흔들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곳.</p> <p>모든 활동은 추가 비용 없이 이루어졌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밴쿠버는 더울 때는 정말 덥고 추울 때는 정말 추웠다. 하지만 더운 날에도 교실은 추워서 겹옷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니 우산을 챙기는 것도 추천한다.</p>
안전	<p>밴쿠버에서 생활하면서 엄청 위험했던 상황은 없었다. 홈리스가 많은 지역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만 피하면 된다.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땐 주변인이나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p>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 홈이 정말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샤워는 10시 이전에 하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는 각자 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홈맘이 해주셨다. 옷걸이, 책상, 옷장, 드라이기까지 방에 있었다.</p>
식사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저녁은 주로 학교 반 친구들과 나가서 먹었고 점심은 홈맘이 도시락을 싸주셨다. 점심은 보통 카레, 파스타, 닭고기덮밥, 잡채 등을 싸주셨다.</p>
교통	<p>통학은 약 30~40분이 걸렸다. 버스나 스카이 트레인으로 통학할 수 있었고 버스는 5~10분 간격으로 온다. 스카이 트레인의 경우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버스의 경우 같은 방향에 종점이 다른 버스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타는 것을 추천한다. 스카이 트레인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6시 반 이후에 모두 존1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하루종일 존1이라 멀리 갈 수 있다. 버스의 경우, 모두 존1 비용으로 탈 수 있다. (존2,3는 추가 비용이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트래블로그 체크 카드	695,140원	저녁, 간식, 기념품
신용카드	300,000원	영양제 및 옷
현금 환전	200,000원	수영장, 빅토리아 티켓, 기념품
합계	4,099,61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날씨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긴팔과 반팔을 함께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을 환전해 가는 것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했다. 팁과 세금이 별도이기 때문에 돈을 넉넉히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물을 사 먹는 것은 비싸므로 물통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다.
출국하기 전에 학교와 홈스테이까지의 거리를 알아가는 것이 가서 적응하기 편하다.
홈스테이 배정이 끝나면 메일로 홈스테이 규칙이나 가져가야 할 것을 물어보는 게 좋다.
밴쿠버는 보통 집 바닥이 나무인 경우가 많아서 실내화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문법 위주 수업이 아닌 스피킹과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었다.
비록 파견대학이 방학이라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없었지만 함께 서머 프로그램을 한 일 본인, 중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까지 연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약간의 문화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며 재밌게 지낼 수 있었다. 이번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해외 수업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와 관계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번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성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skytrain, bus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와 학교 내 여러 편의시설 덕에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수업	<p>우선, 출국 전 배치고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분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중국인과 브라질에서 온 학생이 있었다. 이들을 3 개의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낮은 반에는 한국인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내가 속했던 가장 높은 레벨의 반에는 한국인 9명, 브라질 학생 1명, 일본인 4명이 있었다.</p> <p>수업 내용은 SPEAKING, GRAMMAR 위주로, 한국에서 영어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p> <p>선생님은 매우 활기찬 분이셨고, 참여형 수업방식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셨다. 과제의 경우, 초반에만 조금 있었고, 이후에는 선택하여 본인이 원한다면 작문 과제를 해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p> <p>후반부로 갈수록 영어 발표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문법 수업을 진행할 때도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팀활동을 병행하여, 지루하지 않았다.</p>
Activity	SUSPENSION BRIDGE, VANCOUVER CITY TOUR, 아쿠아리움, 박물관 등에 방문하였고, 추가비용은 없지만 본인이 ACTIVITY 장소에서 먹을 것을 구매하거나, 기념품을 구매하려면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에 비해 훨씬 선선하고 건조한 날씨로, 가끔 더울 때가 있었지만 21일 중 3-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춥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 겉옷을 챙겨가거나,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건조함에 민감한 사람은 그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안전	특정 거리 말고는 거의 안전하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다만, 몇몇 거리나, 늦은 시간의 지하철 역 부근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돌아다니니, 이 부분은 스스로 유의하여야 한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 학교와 도보 17분 거리에 배치되어,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식사	기숙사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홈스테이에서 기본적으로 3끼를 모두 제공해주지만, 현지 식당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점심을 제외하고는 사먹었던 것 같다.
교통	도보로 통학했고, 교통에 용이한 지역이라, 밴쿠버의 모든 주요 스팟에 버스로 3-40분 내에 도착했던 것 같다. 다만, 이 점은 홈스테이 배정 장소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 같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SIM	62,221	데이터 35GB + 현지 통화/문자
생활비	900,000	식사, 페리, 카페, 입장료 등
쇼핑	400,000	옷, 와인 등
합계	1,362,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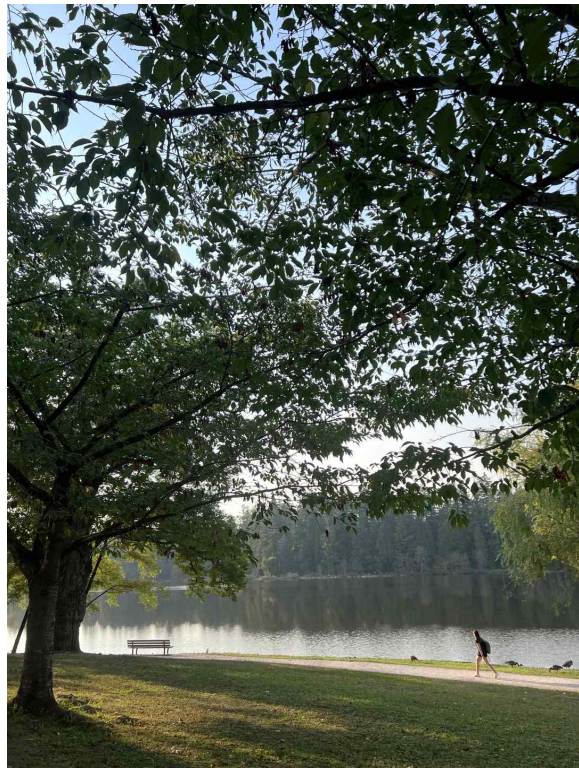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데이터를 쓰는데 망설임이 없었는데도 12GB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 굳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현지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현지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은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는 폰박스 E-SIM을 활용하였는데,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고, 현지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 같이 간 참가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모두가 학교가 끝난 후 친한 사람들끼리 놀러나갔던 것 같다. 생각보다 밥을 더 자주 사먹고, 주로 밖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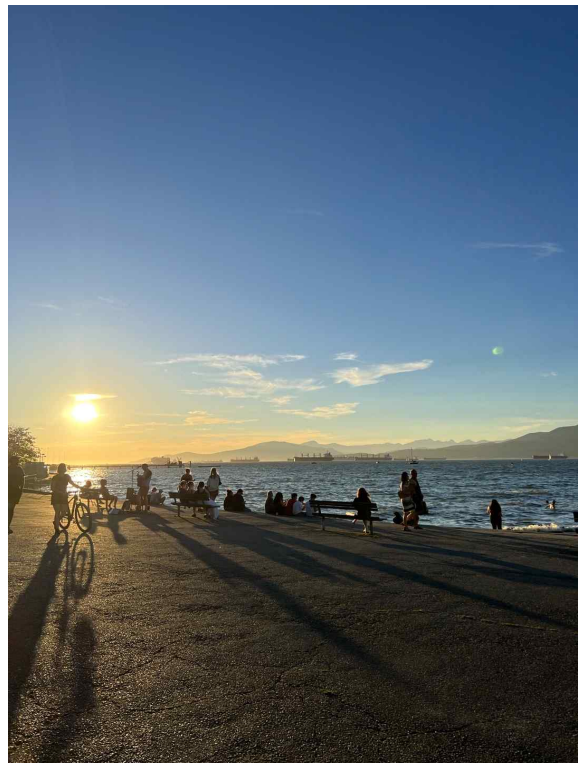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매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화창한 밴쿠버의 날씨와, 덥지 않고 선선한 기온으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한국이었다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도전도 많이 해보았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라는 언어의 향상을 제외하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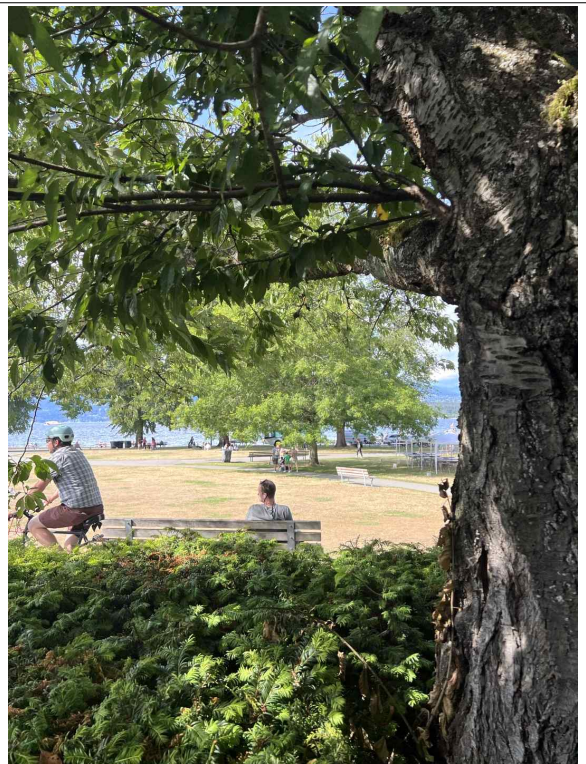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스탠리 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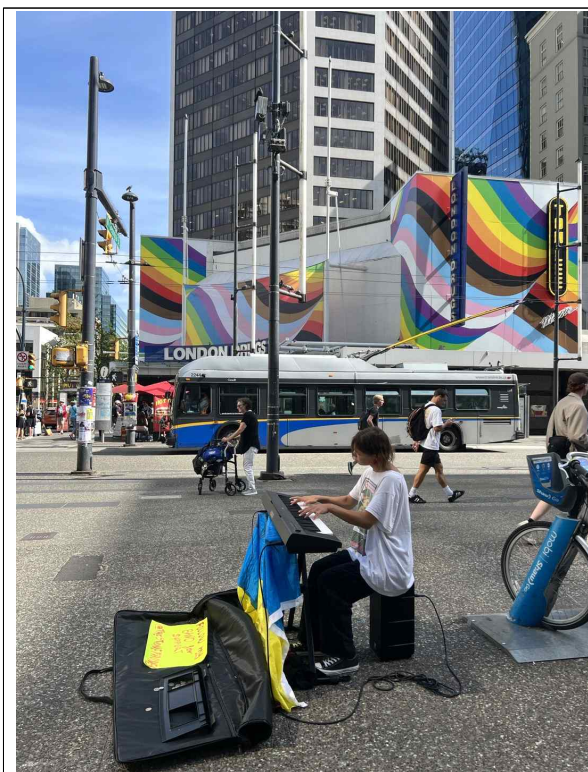
피크닉 하기 좋은 키칠라노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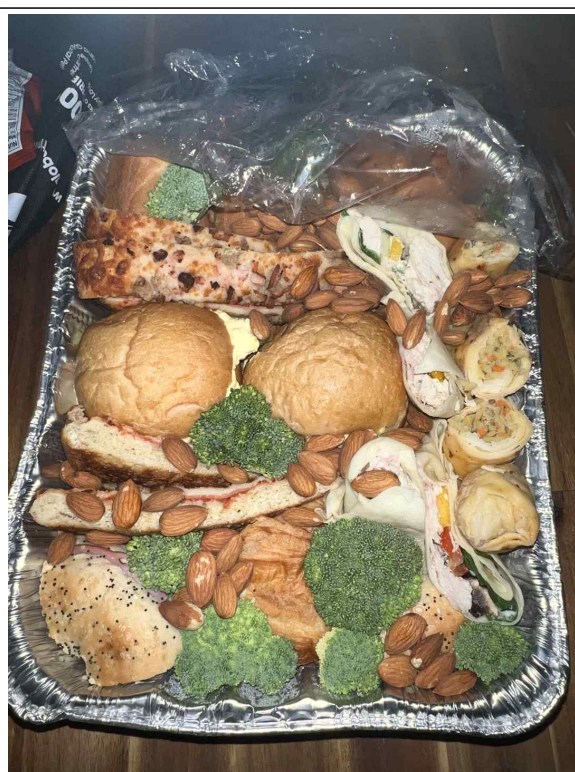
맛있는 사과 초콜릿



화창한 날씨



버스킹이 많은 캐나다



홈스테이 엄마가 친구들과 나누어먹으라고 싸주신 음식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구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학교는 100 W 49th Ave에 있었으며 Langara station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버스 정류장과 도보 3분 정도로 가까웠다.</p> <p>건물은 4~5개 정도가 있었고 이 중에서 주로 A building을 사용했다. 건물 내에는 팀 홀튼과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이 있다. 주로 수업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여유롭고 좋았다.</p>
수업	<p>학교에서 준 바인더와 프린터를 위주로 다양한 주제들을 공부했다. 1주 차에는 캐나다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2주 차에는 여러 문화에 대해, 마지막 주차에는 글로벌에 관련된 것을 배웠다.</p> <p>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식의 수업이 많았다. 줄글로 하는 수업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참여형 수업의 비율이 더 많다.</p> <p>대부분 파트너를 정하거나 조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p> <p>선생님은 매우 열정적이고 학생들이 모두 고루 친해질 수 있는 수업을 선호하신다.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해주셨고,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다. 수업 준비는 학교에서 나누어준 바인더와 개인적인 필기구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모르니 학교에서 나눠준 학생 번호는 사진을 찍어놓거나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p>
Activity	<p>1. Discover Vancouver 밴쿠버 출신의 가이드 분과 함께 Gastown, Canada place, Granville, Science World 등의 관광지를 구경하고 유인물을 함께 작성한다. 많은 시간을 걸으니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주어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으니 돈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p> <p>2. Kayaking 2인이 하나의 카약에 타서 함께 카약을 조정합니다. 여벌옷과 수건은 크</p>

	<p>게 필요하지 않으나 얇고 길고 잘 마르는 복장을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햇빛이 정말 강하므로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를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비용은 들지 않으나 카약 후 자유시간을 주었는데, 주변에 젤라토 가게나, 카페, 맥줏집 등이 있어 이러한 곳들을 갔었다.</p> <p>3. Aquarium 준비물이나 추가비용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 반의 경우 선생님이 내주신 미션을 아쿠아리움 내에서 수행했어야 했었다. 아쿠아리움은 스탠리 파크 내부에 위치해 있다.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끝나므로 스탠리 파크를 구경하거나 다른 주변 관광지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p> <p>4. Museum 아쿠아리움과 마찬가지로 준비물이나 추가비용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 활동 역시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끝나므로 다른 주변 관광지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p> <p>5. Capilano 카필라노는 서스펜션 브리지를 건너고 숲을 돌아다니는 활동이다. 따라서, 편안한 옷과 물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안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파는 작은 카페가 있으나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날씨는 한국 여름 날씨를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 여름옷만 챙긴 친구들은 밴쿠버에서 여러 옷을 사서 입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므로 걸칠 수 있는 옷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p> <p>일교차가 매우 큰 편이니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옷보다는 걸칠 수 있는 후드 집업, 바람막이를 추천한다. 햇빛이 강한 편이므로 선글라스와 선스틱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p>
안전	<p>홈리스들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들이 해를 끼치진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밴쿠버 인들은 친절하다. 길을 잃었거나 다친 경우에 주변 밴쿠버 인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경험이 많았다.</p> <p>다만, Gas town에서 쪽 내려가면 E. Hastings 거리가 있다. 밴쿠버는 거의 안전한 편이지만 이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 마약중독자들, 칼부림이 빈번한 거리이다. 그곳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타는 버스가 그쪽으로 간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p>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는 학교에서 도보 15분, 버스로 15분 포함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화장실(샤워실)은 혼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의 홈스테이는 샤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건식인 만큼 샤워실을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해야 했다.</p> <p>유의사항으로는 저녁을 밖에서 드시고 들어가실 경우 미리 홈맘에게 연락을 하여 알려드려야 한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6시 정도에는 저녁을 먹으니 적어도 5시 이전까지는 연락하는 것을 추천한다.</p> <p>다만, 저의 홈스테이의 경우 조리 금지라는 규칙이 있어서 요리를 할 수 없었다. 물을 끓이거나, 토스트기 사용 같은 간단한 것은 사용가능하지만 원하는 요리를 직접 해 먹을 수는 없었다. 간단한 것은 사용가능하지만 원하는 요리를 직접 해 먹을 수는 없었다.</p>
<p>식사</p>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식사는 호스트가 만들어준 음식을 주로 먹었다. 저녁은 미리 만들어 놓으신 음식을 저녁에 귀가 후 늦은 시간에 혼자 데워먹었다.</p> <p>아침 메뉴는 계란 프라이, 식빵, 삶은 계란, 팬케이크와 같이 간단한 것들이었으며, 그리고 점심은 대부분, 카페테리아에서 함맘이 싸준 도시락으로 해결하였다. 호스트께서 준비해 주신 점심메뉴는 거의 샌드위치였으며, 추가로 과일이나 에너지바 등 간식을 함께 챙겨주셨다. 대부분의 홈스테이는 점심식사로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시는 거 같으므로, 혹시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작성하는 홈스테이 양식에 미리 기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계속 샌드위치를 먹다 보면 한국음식이 그리울 수 있으니, 컵라면이나 컵반 등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p> <p>랑가라에는 뜨거운 물이 없으므로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한 컵라면을 추천한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컴퍼스카드를 이용하면 밴쿠버의 대부분의 장소를 갈 수 있다. 노스 밴쿠버나 리치먼드 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1.25달러 정도는 따로 추가해서 내야 했었고 버스는 추가요금 없이 모두 학교에서 주는 카드로 이용가능하다. 6시 이후랑 주말에는 전부 zone 1로 취급되므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USIM	\$ 75	E-USIM LTE 20G

쇼핑 및 외식	1,100,000원	
합계	4,079,47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Homestay 관련]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어떻게 가야 하는 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출국 전에 학교에서 알려준 홈스테이 연락처(메일)를 통해 미리 규칙 등을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집안 내 규칙이 있는지, 빨래용품/샤워용품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개인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등이 있다.

그리고, 홈스테이에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물론 정말 가족 구성원처럼 대해주고 같이 돌아다니는 곳도 있지만, 단지 밥과 자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호스트도 존재한다. 만약 홈스테이 관련 불만이 생긴다면 호스트에게 말하는 것을 추천한다.

[준비물]

입국 심사를 할 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폰에 미리 사진이나 자료 등을 모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약 자체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약국을 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대가 높고 질이 좋지 않으므로 상비약, 소독약, 습윤 밴드등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많이 돌아다니므로 휴족시간 같은 다리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제품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기타]

한국보다 화장실을 찾는 것이 어려우므로, 식사를 했던 식당이나 카페등에서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술 마실 때는 이종으로 검사하는 곳도 많으므로 여권과 신용카드를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여권 사본만으로 통과가 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존재하므로 국제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식당에는 주로 오후 3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해피 아워라는 것이 있어 그 시간에 맞춰가면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 동안 엄청난 영어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어로 말해보려고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니 어느 정도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외국학교를 다니며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고, 외국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처럼 나오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생활하고 그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교 생활 중 가장 뜻깊고 좋았던 경험일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Vandusen botanical garden</p>	<p>Deep Cove</p>
	
<p>Stanley Park</p>	<p>Victoria Island</p>



Kitsilano Beach



Granville Island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유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학교는 여러 개의 단과대로 구성된 작은 학교였습니다.</p> <p>전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신식건물인지 깨끗했습니다. 학교 내에 팀홀튼, 스타벅스, 서점 등이 있어 학생의 편의를 신경을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p>
수업	<p>1주 차에는 캐나다를 2주 차에는 문화를 3주 차에는 세계 시민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다. 중간에 있는 현장 체험학습이 있다면 수업이 없거나 11시 15분까지 수업하고 카약을 타러 가거나 아쿠아리움을 가기도 했습니다.</p> <p>3주 동안 1분의 선생님과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했습니다. 딱딱한 방식의 수업이 아니라 즐겁게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활동 위주의 수업과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수업 방식이 좋았다. 과제는 1주일에 1, 2개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p> <p>수업에는 2번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포스터부터 발표까지 전부 스스로 영어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인상 깊었습니다.</p> <p>수업은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p>
Activity	<p>전체적으로 직접 기념품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p> <p>카약: 딥코브에서 2인 카약을 타는 활동이었습니다. 추천하는 것은 젖어도 되는 옷과 신발을 챙기고 방수팩이나 지퍼가 달려 떨어질 일 없는 가방이나 방수팩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p>밴쿠버 박물관: 의류의 역사와 밴쿠버의 역사에 대한 전시를 봤습니다. 중간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p>밴쿠버 아쿠아리움: 정말 다양하고 귀여운 생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에 잘 맞추게 된다면 물개와 물범 쇼를 볼 수 있고 상어에 대한 4d 다큐</p>

	<p>를 볼 수 있으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케플라노 다리 : 하이킹하므로 옷은 최대한 편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코스에 대한 도장을 모으면 생존 했다는 증명서를 줍니다.</p> <p>밴쿠버 데이 여행: 1명의 문화 멘토를 따라 4, 5명 정도의 학생들이 개스타운, 그랜빌 등 다양한 곳을 여행합니다. 멘토를 만나는 건 무작위고 멘토의 성향에 따라 여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8월의 밴쿠버는 보통 추우면 최고기온이 20도에서 더우면 30도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팔과 긴바지, 반소매와 반바지를 반반 정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는 잘 오지 않았다. 하지만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크림이나 로션을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해가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선크림을 매일매일 무조건 발라야 합니다.
안전	웬만한 장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노숙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휘청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들의 경우 먼저 시비를 걸거나 말을 걸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8월의 밴쿠버는 해가 보통 밤 9시 정도에 떨어집니다. 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집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V) 외부 숙소() 기타() 홈스테이마다 다 다르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주말과 주중 상관없이 아침과 점심은 스스로 준비해서 먹어야 하고 저녁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고 푸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홈스테이분들과 같이 쇼핑하러 가기도 하고 강아지 산책을 하긴 했습니다. 같이 살았던 일본인 룸메이트와 정말 친해져서 같이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식사	기숙사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 기타()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에는 여러 이민자로 구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의 경우 연어구이, 스파게티, 태국 음식, 일본 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외부 식당에서는 주로 햄버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있는 푸틴이 맛있었습니다. 웬만한 식당에서는 푸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켜먹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	통학은 버스를 2번 갈아타서 했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버스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구글 맵이 있으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TRANSIT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버스 시간과 스카이 트레인의 시간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더 나아가 페리와 씨 버스처럼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160만원	대부분 쇼핑과 기념품 외식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장 먼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전화영어를 1달여 정도 했습니다. 종강하고 나서부터 막상 캐나다에 가서 바로 영어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되니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전화영어를 알아보고 나서 1달 정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영어를 갑자기 사용하는 것이 엄청 힘들거나 벽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영어를 하는 것 자체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캐나다에 가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자신이 없는 분이나, 읽거나 듣기는 잘하지만 말하기가 잘 안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립니다.

캐나다 가기 전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곳저곳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나다 가기 2주 전부터 구글맵에 가고 싶은 곳을 등록해 두고 미리 전체적인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시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가고 싶었던 곳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ESM 할 예정이라면 여러 군데 가격을 비교해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캐나다 홈스테이의 경우 다양한 출신의 호스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호스트분 필리핀 호스트분, 인도 호스트분 등이 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고 문화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 출국 2, 3주에 미리 메일을 드려 규칙이나 원하시는 선물을 미리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특히 헤어드라이머기 같은 전자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념품을 많이 사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출국하실 때부터 넉넉하게 캐리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출국할 때 짐을 쌓을 때부터 한 개의 캐리어에 꼭 찬다고 하시면 작은 캐리어나 다른 큰 기내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언어, 인간관계, 경험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거의 모든 대화를 영어로 진행하다 보니 나의 영어 수준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문장을 스스로 다듬어 가는 모습을 보는 거 자체가 뿌듯했습니다. 특히 호스트분들과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을 때 제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처음에 배웠던 목적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했던 음식 주문이지만 캐나다에서 하다 보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문한 음식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안도감이 생기고 점차 뿌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여행을 갈 때는 전혀 두려움 없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 부분에서는 다양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한국인 이지만 캐나다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사람들은 일본인, 브라질인, 중국인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게 당연하고 캐나다에서도 왼쪽에 운전대가 있었지만 일본 친구들의 경우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것이 굉장히 문화충격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평균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 나의 다름과 성격을 인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는 식물과 날아다니는 벌레조차 굉장히 다른 곳에서 3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밴쿠버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같이 살아가는 도시이고 포용력이 높은 곳입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한국에서는 민망한 것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많은 노출이 있는 것을 꺼리지 않고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빨리빨리 가 익숙한 한국인으로서 주문 후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커피를 기다릴 때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누구보다 신나게 춤을 추고 큰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의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서 제가 진짜 언어를 배운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도시 밴쿠버에서 나의 특성과 성격이 존중되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캐나다의 거대한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키운 자존감이 용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오르지 않아 좌절했던 토익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Vancouver public library



Kitsilano beach



Stanley park



Kayaking



Victoria island –
Legislative assembly of British Columbia



Richmond night market